

추미애 ‘땡깡’ 사과...김명수 인준 물꼬 틀까

우원식 원내대표, 野 협조 호소

국민의당 엇갈린 찬반 당론

오늘 의원총회서 의견 조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과 관련, 국민의당에 ‘땡깡’ 발언을 해 사과 요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꺾막하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정국’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인준 반대가 여전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어서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지난 12~1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해 이날까지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과도한 얘기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하는 등 인준안 처리에 사력을 다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과 달리 바른정당도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인준

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일단 정신회가 켜진 분위기다. 더욱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19일부터 예정된 해외 순방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법 규정상 국회가 임명동의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와 심사보고서 채택을 마치지 못한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음을 감안하면 법이 정한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상태라 정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가 28일이기 때문에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 이전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려면 여야가 추가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연쇄적으로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이 높아지는 등 인준안 처리 일정은 재개됐지만 24일 이전 표결이 가능할지, 실제 표결에 들어갈 경우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121석)이 찬성,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각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민의당(40석)이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당 내에서는 김이수 전 후보자에 이어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당이 ‘코드인사’라고 비판한 김 후보자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선명야당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19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 당내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최명길

안철수 인재위원장...혁신위원장에 천정배

국민의당은 18일 안철수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자리에 최명길 의원을 임명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최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이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 인재영입위원장은 안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다.

제2창당위원회 산하 5개 소위의 경우 정치혁신위원장에 천정배 전 대표, 지방

선거기획단준비위원장에 추승용 전 원내대표, 당헌당규개정위원장에 조배숙 의원, 정당혁신위원장에 이천열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또 당 수권비전위원장에 도천수 서울 성북갑 지역위원장을 임명했고, 이계안 정치연수원장과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각각 유인시켰다. 최 의원의 최고위원 합류로 공식이 된 원내대변인은 금명간 임명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주째 하락 67%

리얼미터, 북한 도발 탓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째 하락해 60%대 중후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4주째 완만한 내리세를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주째 상승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11~15일 성인 254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1.9%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0%포인트 떨어진 67.1%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얼미터는 “6차 핵실험 이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안보 논란이 심화하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자진 사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의 거취를 둘러싸고 인사 논란이 확대된 것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50.4%, 7.2%p ↓), 대전·충청·세종(64.1%, 4.0%p ↓), 서울(69.6%, 1.1%p ↓) 등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0.4%p 떨어진 49.3%로 1위를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18.4%(1.7%p ↑)로 3주 연속 상승해 10%대 후반으로 올라섰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14일 일간집계에서 21.0%로 오르며 작년 12월 28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한국당은 60대 이상(한국당 35.7%, 민주당 25.6%)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0.1%p 오른 5.8%의 동률을 기록하며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김동철,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세계 혜택 법안 추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사진) 의원은 18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수영연맹과 선수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국제수영연맹(FINA)과 각종 수영연맹 등 외국법인의 개최권료 소득에 대해 법인세 20%를 부과한다. 선수단과 심판 등에 대해서는 상급과 수당 등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30%를 부과한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 협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해당 세금은 개최도시인 광주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시는 50억원의 부담을

게 된다. 법안은 후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담고 있어 후원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세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관련 면세 규정을 모두 마련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못지않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정부 블랙리스트 문성근 7시간 검찰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남 마약투약 남경필 지사

“국민에 죄송” 출장 조기 귀국

남경필 경기지사가 18일 장남(26)의 필로폰 투약 혐의 긴급 체포와 관련해 “국민과 도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지난 14일부터 투자유치 등을 위해 핀란드와 독일 방문에 나선 남 지사는 출장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조기 귀국길에 올랐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 폭행 등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장남이 다시 경찰에 체포되자 지역에서는 벌써 남 지사의 내년 도지사 재선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 지사의 장남은 전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바른정당 전대 11월13일

추석 전 선관위 출범키로

바른정당이 오는 11월13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를 오는 11월13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전당대회를 총괄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추석 이전에 공식적으로 꾸릴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국당, 文 청와대 회동 제안 거절

국민의당·바른정당 “참석”

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공식적인 제안이 오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회동에 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

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겠다’는 질문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들러리 회담’에 불과한 만큼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부터 전술핵 재배치, 공영방송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회동에 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회동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초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회담으로, 국회 상황으로 연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바른정당은 회동에 응하겠다는 문 대통령에게 아쉬울 때만 찾는다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각종 모임·행사·세미나는 지리산 온천지구 K호텔 에서!



★ K호텔의 5대 특징 ★

- ▶ 깨끗하고 저렴한 객실요금
- ▶ 넓고 쾌적한 대형 세미나실
- ▶ 전망좋은 바베큐 시설
- ▶ 무료로 사용 가능한 노래방 시설
- ▶ 직접 조리해서 먹을수 있는 식당
- ▶ 문의. 010-3605-5000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